

- 제10회 신행수기 수상자**
- 대상(유마상)
 - 우선주 '내 인생의 참스승'
 - 우수상(현대불교신문사장상)
 - 박순서 '어머니와 동자승'
 - 특별상(중단협의회장상)
 - 김성식 '슬픈 눈물과 기쁜 눈물'
 - 특별상(태고종 총무원장상)
 - 서경자 '기도에 관한 몇가지 소고'
 - 특별상(천태종 총무원장상)
 - 변숙이 '다시 되찾은 희망'
 - 특별상(관음종 총무원장상)
 - 최영숙 '살아있는 부처-달라이라마를 가까이에서 보며'
 - 특별상(총화종 총무원장상)
 - 이상문 '절망속에서 만난 부처님'
 - 특별상(불교진흥원 이사장상)
 - 배명호 '몸으로 체득한 삼법인'
 - 특별상(산수회장상)
 - 민지오 '세상은 살아갈 가치가 있다'

당선 소감

거울에 비친 내 모습과 나를 둘러싼 세상이 온통 흑백일 때가 있었다. 빨간 물감을 뿌려도, 파란 붓을 펼쳐도 언제나 똑 같은 명도의 흑백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 본래의 빛을 찾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다. 그 어려움은 말로 다 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불교를 만나고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내겐 무한한 색상의 세계가 펼쳐졌다. 사물의 본래색을 찾은 것은 아니었다. 내가 깨닫게 된 것은 그 사물을 비추는 '빛'이었다. 나는 빛이 미치지 못하는 나의 어둠만을 환탄했건만, 사실은 빛이 나를 비추



우선주

실천으로 나를 다듬어 갈터...

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을 비추는 것이었다. 모든 것은 내가 비추는 빛의 형상대로 순간순간 드러날 뿐이었다. 그 빛의 끝에서 맞이하게 된 듯밖의 행운에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다. 부족한 나를 앞뒤에서 끌어주고 밀어준 공생선원 스님과 도반들께도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가장 고마운 것은 남편과 아들이다. 방황하는 동안 한 치의 흔들림없이 나를 아끼고 격려해준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이제는 실천을 위해 매진하려 한다. 내겐 이미 찌들어 버린 습식이 남아있어 이따금씩 심적 고통이 찾아올 때가 많다. 아직은 수행이 부족한 탓이라고 여기고 앞으로 많은 가르침을 제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깨달음을 앞세운 실천을 통해 새로운 보병화로 거듭날 것이다.

■ 당선작 (유마상) — 우선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내 인생의 참스승

우리는 매일 하루를 산다. 아무리 억만장자의 재력이라도, 커다란 권세의 권력이라도 매일 이들을 살 수는 없다. 그가 누구든 무엇이든시간에 눈을 떴을 때 주어진 하루는 평등하다. 하지만 그 평등으로 시작된 하루가 눈을 감을 때에도 시작할 때와 같이 평등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의 얼굴이 각기 다르듯이 그 하루의 마침도 그러하리라. 벌써 내 인생도 45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그 오랜 시간의 하루하루를 언제나와 같이 시작했지만 그 마침은 한 번도 같은 날이 없었던 것 같다. 아니 없었다. 그 많은 날들 중에 단 하루라도...

내겐 몸서리치게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과거가 있다. 언제부터인가 저녁이면 어둠이 스며들 듯 내 마음에도 어둠이 스며들음을 나는 몰랐다(자기 자신의 입에도 말이다).

처음엔 그저 말하기도 싫고 사람들과의 어울림도 싫어지고 밖에 나가기도 싫어지더니 소리도 싫어지고 햇빛도 싫어지고 그저 모든 것에서 숨어 버리고만 싶어졌다. 세상 모든 것들이 나를 짓눌러 오는 것만 같아 난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무척이나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쾌활했던 내가 자폐성 우울증이라니 참으로 믿기 어려웠다. 나라는 존재조차 없애버리고 싶을 만큼 내 숨소리조차도 나를 괴롭혀왔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과도 같은 우리 아들! 그 아이의 존재가 왜 그리 내게 무겁게 짓눌러 오는 무개였는지, 지금 생각하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난 내 아이에게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김밥을 싸 준 적이 없다. 남편이 이제사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이 소풍 갈 때까 제일 맘 상했다. 김밥도 없이 텔레텔레 혼자 일어나서 가 밥 먹고 소풍가는 아이를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건실업을 하는 남편은 건축현장을 돌아봐 왔기에 새벽에 일찍 나가서 아이 일어난 시간 이전 전화로 어린 아들을 깨우고 훑시 못 일어 날까봐 자명종을 아들 머리맡에 놓아둔다. 아이는 깨면 일어나 밥 먹고 혼자 학교에 간다. 그 모습을 바라봐야 했던 남편의 그 참담한 심정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남편도 아들도 뒤로 한 채 나의 우울증은 점점 더해만 가고 한번 시작된 증상은 내 모습을 길거리 노숙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버렸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 뒷발이 선 눈과 울퉁 패인 볼. 누가 이런 모습을 보고 '우선주'라고 하겠는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고 끝도 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서도 그 증상의 속박을 벗어날 수 없었다. 병원에서 주는 약은 나를 흐느껴뛰는 연체동물처럼 만들어갔고 손가락 하나 들어올릴 힘조차 없이 살아있다는 생각조차 힘겨워 무력감에 빠져 있기만 했다.

그런 와중에 나는 술에 손대기 시작했다. 약을 먹는 것 보다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력감도 사라지는 듯 했으며 속박감에서 벗어나 자유로움도 잠시 맛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보다는 술의 힘을 빌리는 날들이 많아졌고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

그런 나를 예타게 지켜보던 남편은 결국 의사의 권유로 병원에 입원시킬 결심을 했다. 그것이 마음 아팠던 남편은 시누이가 출가해 있는 해인사 약수암으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마침 2박3일짜리 어린이 수련회가 있어서 아들을 해인사 수련회에 입회시켰다. 3박4일 동안 나도 같이 약수암에 머물며 너무나 오랫동안 있고 싶었던 평화로움과 따사로움을 맛보았



그림 · 문병성

**쾌활하던 내가 자폐성 우울증이라니... 믿기 어려웠다
거울을 보며 울부짖었고 점점 무력감에 빠져 들었다**

다. 처음 해보는 새벽예배의 발원문을 들으며 웬지 모를 한없는 눈물이 흘렀다. 서러움도 슬픔도 아닌 무엇이라 표현할 수도 없는 감성 속에서 부끄러움도 있는 채 목 놓아 울었다.

몇 년 전 나는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 그저 기도하고 매달리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섭리를 구약과 신약말씀을 넘나들며 열심히 깨달았고 직분도 맡아 하나님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한다고 자부했다. 그렇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그토록 존경하던 목사님이 변해가는 모습에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다. 이후 우울증은 더 깊게 진행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성서에 기록된 섭리를 깨우치게 도와준 그 목사님에 대한 감사함은 지금도 변함없다.

시누이 스님의 스승인 보선 스님께서 '교회에 다니다면서 어떻게 해인사 수련회에 아이를 보낼 생각을 했느냐?' 하시기에, "제가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내 아이가 부처님을 믿겠다고 하면 그리 해 줄 겁니다" 하니 "부처는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이지.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게지!" 하셨다. "그것이 참스승이

까?"하니 그저 방귀가 웃으시는데 참으로 편해 보였다. 스님의 영향이랄까 갑자기 내 마음도 편해지면서 희망이라고나 할까, 기쁘고도 같은 것이 나를 설레이게 했다.

수련회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입원은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 참선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도 쾌히 승낙해 주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관악산에는 오래된 사찰인 연주암이 있어 그 주변에 많은 선원이 있었지만 지하를 두 번 갈아타는 조계사로 갔다. 한 달 후에 개강할 불교기본반과 참선입문반을 동시에 수강 신청했다.

한 달 동안 난 집에서 열심히 먹고 치료받고 운동하며 옛날의 모습을 찾으려 최선을 다했다. 한 달 후 조계사로 가는 내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벼웠음을 지금도 생생하게 느낀다.

다섯 분의 스님이 나란히 서서 소개를 하는데 유난히 돋보이는 맑은 눈김의 스님이 계셨다. 하지만 내가 신청한 불교입문반의 담임스님이 아니라서 약간의 실망감도 있었음을 기억한다.

참선입문반 첫날의 생소하고 낯선 분위기와

기대감을 나를 긴장시켰고 이어 조용히 들어 오신 스님은 모든 의식을 마치고 법상에 돌아 앉으셨고 여전히 고요하고 맑아 보이는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아! 그 스님이시다"를 되뇌었다.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 지는 것 같았다. 난 그때 그 첫 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빛이 있어 모든 만물을 비춘다. 빛이 꽃을 비출 뿐이지 드러나고, 풍을 비출 뿐 풍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풍을 비출면 빛이 꽃을 비춘다고 해서 그 빛에서 풍냄새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꽃향기만 가득할 뿐입니다. 풍을 비출 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빛은 그저 비출 뿐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비추어진 물질이라 생각하고 이 빛을 신이라 생각하여 각자의 종교대로 부처로, 하나님으로, 알라로 믿고 의지하지만 이 빛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단지 관세음으로 예수로 나타내서 이름을 붙여 차이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이름하여' 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해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조사들도 네가 부처임을 알지 못

승복 범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 1. 고급 모직(물세탁)
 -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 동방바지 190,000 ~ 210,000
 - 두루막 140,000 ~ 170,000
- 2. 무명(면물, 손염색)
 -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 조끼 60,000 두루막 170,000
- 3. 면 숄없이 누비(한국산 숄염색)
 -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10,000
 - 조끼 60,000 두루막 160,000
- 4. 면 목화솜 누비(면물 염색)
 - 적삼, 바지 210,000 동방, 바지 250,000
 - 조끼 70,000 두루막 200,000
- 5. 모직 특수솜 누비(물세탁)
 - 적삼, 바지 240,000 동방, 바지 290,000
 - 조끼 80,000 두루막 230,000
- 6. 장삼
 - 고급모직 220,000 제일모직 250,000
 - 실크 · 금남 준비되어 있습니다.
- 7. 가사
 - 대가사 150,000 ~ 200,000
 - 반가사 70,000 ~ 100,000

■ 기타 : 스님 차이나 남방, 니트, 니트모자, 마후라, 기방, 선도용 조끼, 바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전시장 : 053-256-0108
공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아름승복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심아파트 주차장 내)

관상학특강반모집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시주로 볼 수 없는 찰색!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강점 완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중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8**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부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둔갑

현대인의 성인병

귀의 삼보하움고, 불자님 가정에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현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공해, 환경오염, 밤낮이 뒤바뀐 생활, 불결계 등 각종 환경적 요인과 내적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질환과 각종 알수없는 난치성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승이 출가 이후 오메도록 수행에 정진해 오다가 개인의 지중한 인연으로 의학에 관심을 버릴수가 없어 오랫동안 **민속의학**을 연구하였고 한의학을 전공 하였습니다. 그후 그동안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여러가지 질환을 치료해오고 있던중 **본교**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전수된 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여러가지 **신요한 치료법**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연있는 많은 불자님과 환자분들의 성원으로 고 통을 가지고 있는 질환자들에게 대하여 느끼는 바가 많았으며 **고혈압, 당뇨, 중풍, 축농증, 소이일리지, 신장질환, 부인병, 간질환** 등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였으며 이미 임상에서 치료력이 탁월한 처방을 개발하여 환제나 당제로 만들어 전국의 인연있는 불자님께 보급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도 인연있는 중생을 제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여타 질환이나 각종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해온 불자님께서는 그간의 고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시겠지만 편안 한 마음으로 꼭 한번 체험하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지면상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나마 글을 올립니다.

경기 오산시 원동
TEL. 031)376-2748 / H.P. 011-9104-0037
약수암 포교원 원장 석지장 합장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혁신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우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아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인와사, 안경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로,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협업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버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합,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버.COM
- 주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그림 · 문병성

병원 입원하기전 여행삼아 찾아간 절에서 눈물이 펄펄 참선·교리공부 시작하니 새 삶...“오로지 믿음입니다”

하는나고 한 것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인가! 하나님 예수님이 빛인 줄로만 알았던 내게 내가 빛이라니...

“여러분이 빛임을 증명할 수 있는것은 나는 한사람인데 엄마도, 아내도, 딸도 되고, 도반도 되고 이렇게 여러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비추는 빛의 형상이 나타나는 대로 그저 작용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한 형상에 머물 수 없음은 수없이 내 앞에 순간순간 나타나는 형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오는 대로 작용하여 놓고 비우기에 이를 공하다고 하고 그 빛의 참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공이라 이룰하기도 합니다.”

스님은 빛으로 따른 거울로, 구슬로 호수로, 공기로 물로 비유하시며 우리들을 두드리셨다. 공함의 이치와 모든 것을 그 주인공에게 놓고 지켜봄을 설법하셨다. 어린 아이가 엄마를 무조건 믿고 의지하듯이 그는 하나님이고, 부치고, 일라이고 우리가 지금껏 의지하고 믿고 매달려왔던 신이고, 절대자라 하셨다. “그런 절대자가 참나인데 왜 밖에다 대고 빌고 구걸합니까? 그것은 거지나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한 주일마다 주시는 법문과 주인공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나를 죽음으로 내몰던 우울증으로부터도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다.

단 한 번의 약물복용도 없이 그렇게 3년 반을 보냈다. 처음 그렇게도 믿어지지 않던 나의 뿌리인 주인공자리를 여러 번의 체험을 통해 이제 나는 확연히 믿는다. 참으로 간절히 사무치게 그를 찾았고 나름대로 나를 놓으며 무엇을 하든 지극히 하려 했고 아직 틀 아닌 하나님 도리를 확연히 체험하지는 못했어도 그리 하려 노력한다.

지난해 비가 몹시 퍼붓던 날 좌선 중 나는 너무나 확실히 체험했다. 눈 하나 깜박일도 나본인이 하는 것이 아님음. 어느 것도 나의 것은 없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임을 알았을 때의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그에게 놓고 맡기고 지켜보다. 아무도 없는 공간 스피커에서 “아제야제 바라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가 수없이 들린 적도 있었다. 물론 나의 내면

의 소리지지만.

아직은 지금껏 살아온 나의 찌들어버린 업식이나 습기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지만 이전 그 자리를 참으로 확연히 믿기에 고통이 그 옛날 고통과 같지는 않다. 그저 고통을 느끼고 맛 볼 뿐이다.

지금 있는 선원의 주지스님께서는 어느 날 죽비를 세우시더니 “시간을 수평이라 생각하여 과거 현재 미래라 하지만, 시간은 수직이어서 그 셋이 한 줄에 있습니다. 과거가 없었다면 현재의 나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 현재에 있었던 일이 과거에선 미래현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이 순간 참나의 현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과거 미래 현재라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과거가 지나간 것이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지어졌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과거의 미래인 지금 내가 어떤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도 몸서리치게 살아진 3년 조금 넘는 나의 지옥같은 삶이 이전 내게 감사함으로 남아있다. 그런 뼈아픈 일을 겪지 않았다면 진정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그저 태어나 윤회의 바퀴에 굴러 다녔을 텐데.

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궁금함 따윈 없다. “인과에 대한 응보는 꼭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라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 지었던 자신의 업입니다. 공을 던지면 반드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 또 전생의 업을 지금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모든 것

을 순순하고 그 자리에 맡기고 지켜보십시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모든 공덕은 내가 낮아지고 죽어져야 그 곳으로 모입니다. 흐를 수 없는 물은 썩어 버립니다.”

나는 선원에서 조금은 많은 일을 한다. 사람들은 어쩔 그리도 봉사할 줄아는나고 정찬을 해주지만 주인공자리를 여러 번의 체험을 통해 이제 나는 확연히 믿는다. 참으로 간절히 사무치게 그를 찾았고 나름대로 나를 놓으며 무엇을 하든 지극히 하려 했고 아직 틀 아닌 하나님 도리를 확연히 체험하지는 못했어도 그리 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임을 알았을 때의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그에게 놓고 맡기고 지켜보다. 아무도 없는 공간 스피커에서 “아제야제 바라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가 수없이 들린 적도 있었다. 물론 나의 내면

아들로 자라 이기적인 데가 있어 친구도 없었는데 이제는 늘상 친구들이 찾는다.

성적도 상위권이고 학교통지서의 생활면에는, 통솔력있고 협동심이 강하다고 기록돼 있음을 보니 정말 감사하다. 남편사업도, 남편은 IMF때보다 더 어렵다 하지만 두 번의 사업실패 경험이 있어서인지 직원들도 성실하고 거래처도 많이 늘어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다.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 나의 숨소리조차 감사하다.

지금도 가끔씩은 마음의 병이 찾아오곤 한다.

꼭 딱힌 밀폐된 공간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과 그래서 숨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과 북받치는 슬픔과 외로움이 나를 흔들어 놓기도 하지만 그것조차 두렵지 않다.

나는 그 자리의 고요함을 맛보았으며 그렇게 나를 흔들어 놓아도 의지할 곳이 오직 그 자리 그 곳이란 믿음을 확고히 하게 한 가르침의 한 모습이기에 마음을 가다듬고 자리에 고요히 앉아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놓는다.

나의 스승이신 스님은 말씀하신다. “이 세상 무생 유생 만물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며, 스승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스승이라 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한번도 당시 공부 자량이 없으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믿음입니다. 믿고 놓고 지켜보는 것, 그것만을 알려 드릴 뿐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믿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해 보십시오. 아기가 엄마를 믿듯이 그러면 꼭 상봉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주인공이 나의 스승일 지라도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 스승께 감사함을 어찌 말로 다하겠는가? 수도 없이 의심할 때마다 체험담을 들려주시며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 자상하게 깨우쳐 주신다. 만개의 입이 있어 감사함을 표현한들 족할까?

스님은 밖으로 뻗어있어 내가 있는 마음속 내 안에서 찾으라고 항상 말씀하신다.

“남에게 달라고 비는 것은 거지나 하는 말입니다. 관세음도 지장도 문수도 보현도 다 내 속에 있는 자성불 안에 있어 작용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상들은 내 마음의 표현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실현이 없는 깨달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구부리와 화하증생은 틀이 아닙니다. 깨달음보다 더 힘든 것은 깨달음을 앞세운 실천입니다. 틀 아닌 도리로 실천을 해야만 업식을 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스승같이 아버지같이 친구같이 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스님이 그림다. 가만히 눈감으면 떠오르는 선원이니 공양간이 그저 그림다.

특히나 연니같고 스승같기도 한 보살님이 나 선원의 도반들이 그저 그림고 그림다.

※ 본 단상적은 신행수기 연동모임에 채택되어 본지 481호부터 483호까지 게재했던 작품임을 알려드립니다.

심사평



12월 22일 본사 사육에서 열린 제10회 신행수기 공모 심사 장면.

90여 편에 이르는 응모작 가운데 예심을 통과한 작품은 총 11편이었다. 10회를 맞이한 신행수기 공모작의 수준이 예년에 비해 월등히 높아져 당선작을 선정하는 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 사찰을 중심으로 진행된 ‘신행수기 공모’를 반영하듯 기대 이상의 좋은 작품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우선서 씨의 <내 인생의 참 스승>과 박순서 씨의 <어머니와 동자승>은 특별히 주목된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탄탄한 문장력과 구성력을 바탕으로 신행생활의 감동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10회 맞아 수준 월등히 높아져 기록·집착보다 신행 할 묘사 ‘태고종 총무원장상’ 신설

<내 영혼의 참 스승>은 참선수행을 통한 삶의 변화를 진솔하게 풀어낸 것이 돋보여 대상으로 선정됐다. <어머니와 동자승>은 어머니와 동자승을 소재로 불심을 감동적으로 형상화한 것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 외에도 소소한 일상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들의 삶이 담긴 작품 7편을 추가로 선정했다. 기록이나 교리에 집착하지 않고 신행생활과 불법을 접목, 진지한 필체로 풀어낸 작품들이 많았다. 특히 올해는 태고에서의 명상수행, 달라이라마 전건 등 이색적인 주제로 풀어낸 작품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 심사위원장 : 법산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 심사위원 : 김정자 (본지 논설위원)
- 오윤희 (본지 편집위원)
- 이남숙 (신수회장·조계종 포교사)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 뒹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담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한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인편(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eistwhg@buddhapia.com

당 하 당 뇨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 측정기 (1Set)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이논만림 치료할 수 있다" (책자)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 인슐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 복용 15~20일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 복용후 효과 없을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운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 안희숙

친원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관절과 연골에

글루코사민 포르테

관절염 치료제 BDx-1(특허 제0429595호)

BDx-1은 2000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총 10억여원의 개발비를 투자하고 중소기업청이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하여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카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활성평가 연구실에서 30여 차례 이상의 효능 및 독성실험 등 임상 실험을 거쳐 완료된 관절염 치료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원료입니다. 2004년 4월 국내 특허를 획득(특허 제0429595호 : 생약추출물을 포함하는 관절염치료 및 예방용 조성물의 제조방법 및 그 조성물) 하였습니다.

- 골관절염
- 통증을 감소 및 활동성 향상
- 관절손상 보호
- 항염증 작용
- 혈액과 관절에 쉽게 흡수되어 항염증, 진통작용
- 활동성을 향상
-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신장결석, 사그들염으로 인한 관절계통의 상처 치유

관절과 연골은 끈튼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 포르테는 엄격한 품질관리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글루코사민 포르테"를 1개월간 복용하면 놀라운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2~3개월간 복용하면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주)게이엠제약

주른 및 상담전화 : 02-598-9834

간(肝)

간지방간 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덩과 비갈민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미술)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기를 죽은 것과 반 정도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세균 사멸.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미술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육질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룬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한다.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향리에 넣고 왕겨 97마리를 달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흰 향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선청:055)963-9583 · 상담문의055)355-5626

산마를 토종 (민속농원)

하기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 부록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